

“전일빌딩 지하서 시신 167구 봤다” ... 행불자 규명 새 전기

5·18 광주 진압군 3공수 11대대 지휘관 새로운 증언

헬기사격 시점 박남선 시민군 상황실장 등 증언 시간과 일치

“전일빌딩 진압작전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 투입된 부대원들이 전일빌딩 지하에서 시신 167구를 봤다.”

29일 광주일보가 확보한 5·18 당시 투입부대였던 3공수여단 11대대 소속 소령이 1980년 5월27일 당시 전일빌딩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부하로부터 받은 보고다.

◇전일빌딩 지하 시신 보관 의혹=옛 광주일보 사옥인 전일빌딩 지하에 시신 167구가 있었다는 증언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다. 당시 공수 시민들은 공개된 장소였던 상무대에 희생자를 안치했고 계엄군은 조선대나 국군통합병원에서 시신을 이송했기 때문이다.

공수 부대원들의 시신 목적담은 계엄군이 은밀하게 시신을 보관했던 장소가 전일빌딩 지하라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도심에서 살상한 희생자들을 전일빌딩에 임시로 보관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안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자행된 21일부터 전남도청 진압작전까지 있었던 27일까지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후 종적을 알 수 없는 희생자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광주의 한 5·18연구자는 “전일빌딩 지하에 시신 수백구가 있었다는 내용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으로 추후 조사가 필요해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 시신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행방불명자 압매장지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살펴본 전일빌딩 주차장은 시신을 숨기기 알맞은 장소로 보였다. 가로 2m×세로 3.5m 크기 입구 외에는 다른 출입 통로가 없으며 내부는 165㎡(50평) 규모로 넓적이다. 원래 주차장으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안전문제로 폐쇄 상태다.

전일빌딩은 옛 전남도청으로부터 50m, YWCA로부터 10m, YMCA로부터 10m, 관광호텔과도 20m 떨어져 있다. 각 건물에 있는 동선 중앙에 자리한 요충지다. 특히 전일빌딩 주차장은 입구가 좁을 뿐 아니라 빌딩과 전남도청 사이로 나있어 대로 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위치다.

◇5월27일 전일빌딩 헬기사격 있었다=전일빌딩 헬기 기총사 시점은 크게 1980년 5월21일과 27일로 나뉜다. 3공수 여단 지휘관이 제보한 27일은 그동안 수차례 광주시민들이 목격했던 날짜와 일치한다.

전일빌딩 지하 주차장

- 전남도청으로부터 50m
- YWCA로부터 10m
- YMCA로부터 10m
- 관광호텔과도 20m
- 각 건물 중앙에 위치
- 입구 좁고 밖에서 안 보여

박남선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은 지난 2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쯤 별안간 금남로 상공에 날아든 헬기가 전일빌딩 옥상과 상층부를 난사했다. 총성과 불꽃이 헬기에서 끝없이 튀어나왔다. 그러곤 공수부대가 도청으로 밀려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헬기 기총사들은 1980년 5월 27일 새벽에 실재했었다”면서 “내가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전일방송에서 PD로 근무했던 이모씨도 “5월27일 새벽 3~4시께 헬기가 불로전 쪽에서 도청을 향해 날아가며 사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푹푹 헬기에서 튀어나온 10여명의 군인이 도청으로 뛰어갔고 헬기도 날아올라 도청 방면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대 3학년이었던 김모씨는 “5월27일 새벽 4시께 도청 후문에서 경계를 서던 중 계엄군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며 사격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모씨도 “5월27일 새벽 소태동 쪽에서 전남도청 쪽을 바라보니 헬기가 낮게 날면서 2~3차례 총을 쏘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빌딩 10층(꼭대기층) 내부 천장과 바닥, 벽면 등에서는 지난해 말 총탄 흔적으로 추정되는 파손흔적이 발견됐다. 광주시 의뢰로 감정해 나온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UH-1H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에 의한 헬기 기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의해 꾸려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헬기 사격 의혹 진상 조사를 펼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곳에 5·18 희생자들이?

2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지하주차장을 빌딩 관계자가 살펴보고 있다. 전일빌딩 지하 주차장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투입됐던 지휘관이 시신 167구를 보관했다고 장소로 지목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두환, 5·18유족 입 막으려 야당 노골적 사찰”

민주당 이철희 의원 공개, 보안사 ‘정보사업계획’ 문건 DJ 신민당과 교류 진상 규명 쟁점화 못하게 방해 공작

전두환 정권의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기무사의 전신)가 5·18 유족들에 대한 분열공작의 하나로 당시 야당인 신한민주당(신민당) 주변을 집중 사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사는 유족들이 신민당 관계자들과 교류하면서 5·18 진상 규명을 정치 쟁점화하지 못하도록 광범위한 방해 공작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보안사의 ‘정보사업계획’ 문건에 따르면, 보안사는 1985년 12대 총선을 전후해 신민당 관계자들을 뒷조사했다. 신민당은 지난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의 계보를 잇는 정통 야당으로,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의 전신이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귀국해 신민당에 힘을 실어준 즈음이었다.

보안사는 이 문건에서 “12대 총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동시에 전남 ○○ 지역구 신민당 입후보자 등이 광주사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유족들을 상징적 존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족들이 신민당 지원을 위해 12대 국선(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서부터 국력 측 유족들이 세력 확산에 부심하고 있다”고 뒷선에 보고했다. 보안사는 유족들의 구심점인 계 모임의 계주가

신민당에서 선거 사무장으로, 재무 담당이 여성분과 부녀부장으로, 한 회원이 광주시 송암동·효덕동 조직책으로 각각 활동한 내용을 파악했다.

유족 30세대 35명이 매달 두 차례 ‘공원모지’(5·18모지) 등에서 모임을 하고, 정부 차원의 정당한 보상과 기관원의 감시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도 보고서에 적었다.

신민당이 창당 28일 만에 치른 총선에서 지역구 50석과 전국구 17석의 의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킨 후에도 보안사의 집요한 사찰은 계속됐다. 보안사는 “(유족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국회에서 거론되도록 배후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국회 방문을 위해 상경을 시도(하려 한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국민 지지를 받는 야당을 노골적으로 사찰할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안사가 가장 강력한 권력기

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함께 공개한 1981년 5월 28일자 ‘광주사태 1주년 대비 예방정보활동 결과’ 문건을 보면, 보안사는 전라남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18 사망자 묘비 건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철회시켰다. 이 방안은 중앙정보부 후신이자 국가정보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가 제안한 것이었지만, 보안사는 ‘명분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손쉽게 무산시키고 유족의 자비 건립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전두환 정권이 ‘5·18의 정치화’를 극도로 경계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5·18이 정권을 넘어뜨릴 최대의 아킬레스건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며 “오월 광주의 참상을 어떻게든 감춰보려 했던 그들의 헛된 시도는 87년 민주화로 끝내 좌절됐다”고 말했다.

/김현호기자 khh@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HNT 하나투어

하나투어 온라인 여행박람회

2017. 11. 06(월) - 26(일)

| 올해의 추천여행지 필리핀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228-1199

하나 Pack 캐주얼 AVPF10_VJ1

하롱베이 비경관광 포함
하노이·하롱베이·엔프 5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 17년 12월 30일~18년 1월 31일

✈ 비엳펏항공(VJ항공)

🍽 차맥아식제공, 무제한 생수서비스, 특식3회(오삼 불고기, 럭비레스토랑, 노니보쌈정식)

하나 Pack 클래식 ARPF01_ZA1

VIP 급행비자 포함
앙코르왓 4일·5일

총 상품가격 8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 17년 12월 30일~18년 1월 27일(매주 수, 토)

✈ 스카이앙코르항공

🍽 앙코르툼 특특이 투어, 특식 3회(쌈밥정식, 디너뷔페, 수끼)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안전보험료, 관광진흥기금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여행 www.h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착에 따른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여행 www.h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투어팀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령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총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휴일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명절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n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여행 1)여행 유의 2)여행 자재 3)여행 권고 4)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